
우주를 배우며, 나를 발견하다

2학년이 되던 해 나는 학교 내신에서 지구과학이라는 과목을 선택했다. 처음에는 단지 내신 점수에 유리할 과목이라고 생각했지만 수업을 들으며 그 생각이 정말 단순하고 의미없었다는 것을 금세 깨달을 수 있었다. 지구과학은 단순한 암기 과목이 아니라 실제 자연의 원리를 탐구하는 흥미로운 학문이었다. 별의 움직임과 지구의 구조를 배우면서 나는 교과서 너머의 세계를 상상하게 되었고 점차 과학이라는 학문의 깊이에 매료될 수 있었다. 하지만 현재 입시 위주의 교육과정은 실험과 관찰 중심의 활동이 그렇게 활성화 되어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학교 수업만으로는 내가 탐구하고 싶은 영역을 충분히 다루기가 어려웠다.

그러던 중 3학년이 되어 학교에서 고교학점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나는 지체 없이 '인류와 우주 대항해시대' 라는 수업을 신청하였고 14명의 후배, 친구들과 함께 생활하게 되었다. 이 프로젝트에서 나는 여러 이론들을 심층적으로 배우고 에어로켓, 관측기와 같은 여러 기구들을 직접 다루기도 하며 Space Engine이라는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활용한 태양계 행성과 별의 운동을 시각화한 콘텐츠를 제작하기도 하였다. 처음에는 복잡한 기능을 익히느라 힘들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시행착오를 거듭하며 점차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갔다. 특히 팀원들과 함께 하는 활동에서는 효율적인 역할 분담과 서로의 아이디어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협업의 가치를 배울 수 있었다. 이로써 이 프로젝트가 단순히 결과물을 만드는 활동이 아닌 각자의 생각과 노력을 모아 하나의 완성된 배움을 만들어가는 과정임을 느낄 수 있었다. 또한 나의 학습 태도를 다시 되돌아볼 수 있게 해준 특별한 계기가 되었다. 이전의 나는 단순히 성적 향상을 위해 공부했지만 이제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이 지식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에 대해 스스로 묻고 답하는 탐구 자세를 갖게 되었다. 과학의 원리가 세상을 설명한다는 점을 깨닫게 되면서 나의 흥미와 열정은 더욱 커져만 갔다. 이를 통해 나는 단순히 과학을 좋아하는 학생을 넘어 지식을 전하고 탐구의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교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더욱 확실해졌다.

고교학점제는 나에게 배움의 새로운 형태를 제시한 제도였다. 교실 안에서 주어진 수업만으로는 얻을 수 없었던 깊이 있는 학습과 협력의 경험을 통해 나는 스스로 배우고 성장하는 힘을 기를 수 있었고 이 경험은 나의 진로와

학습의 의미를 다시 정의하는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 나는 교사가 되어 학생들이 나처럼 스스로의 흥미를 발견하고 배우는 과정을 즐길 수 있도록 돕고 싶다. 지식을 단순히 주입시키는 것이 아닌 배우는 즐거움을 통해 스스로 성장하도록 이끄는 교사가 되는 것이 나의 목표이자 소망이다. 고교학점제를 통해 얻은 이 경험은 나의 학문적 방향과 인생의 목표를 명확히 세워준 결정적인 계기였다. 현재 우리의 교육은 여전히 대학 입시 중심의 구조 속에 머물러 있다. 학생들은 자신이 무엇을 배우고 싶은지보다는 어떤 과목이 내신에 유리한지를 먼저 고려해 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번 고교학점제 과목 수강을 통해 나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학생이 스스로 배우고 싶은 것을 능동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했다. 나 역시 이 제도를 통해 지금까지의, 그리고 앞으로의 나의 삶에 대해서 깊이 있는 성찰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미래를 바라보며 커가는 여러 학생들이 고교학점제를 통해 자신이 원하는 꿈을 향해 나아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